

조선

Chemical tanker, 역시 좋다 !

2013. 11. 06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Chemical 운송 시황은 개선

지난 몇 년간 침체기를 거쳤던 Chemical 해상운송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1)해상 수송량 증가 2)경쟁선사의 수 감소 3)최근 몇 년간 선박 인도량 감소 이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남미로 그리고 유럽으로 Chemical 해상 수송량은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이후 미국에서 Tight Oil 생산량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Ethylene, Propane, Propylene과 같은 Chemical 생산량도 부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국내 Chemical 공장 신설과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일본 JGC가 Chevron으로 부터 세계 최대 Ethylene 공장 EPC를 수주했으며, Dow Chemical은 가동을 중단시켰던 Ethylene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침체기를 거치면서 Chemical을 운반하는 선사의 수는 줄어들어 Chemical 해상운송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황이다. 살아남은 Chemical선사는 Stolt-Nielsen, Odfjell, Ardmore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늘어나는 해상 수송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임을 통제하기 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Chemical tanker 인도량도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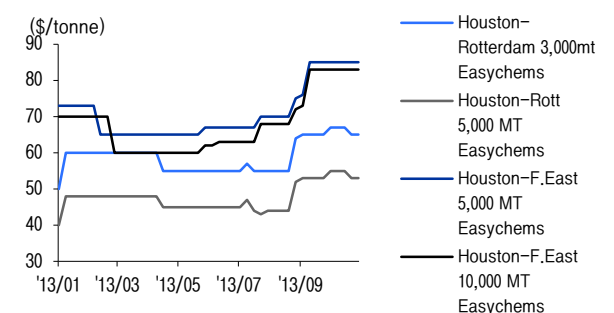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 중심의 제한된 경쟁구도

늘어나는 Chemical 해상수송에 비해 선박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유는 건조과정의 복잡성, 폭발위험성으로 선박 사이즈는 제한, 현대미포조선 중심의 제한된 경쟁구조 때문이다.

Chemical tanker는 상선 중에서도 건조과정이 복잡한 중형 특수선으로 분류된다. 특히 37-38K급 Pure Chemical tanker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화학제품 56가지를 동시에 싣고 운송하며, 각 독립탱크 내벽에 코팅작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화물들이 서로 섞이게 돼 폭발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Chemical tanker의 사고의 위험도로 분류하면 LNG선과 해양구조물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박 사이즈는 IMO에 의해 40K 이내로 제한되며, 건조과정의 복잡성으로 신규 경쟁자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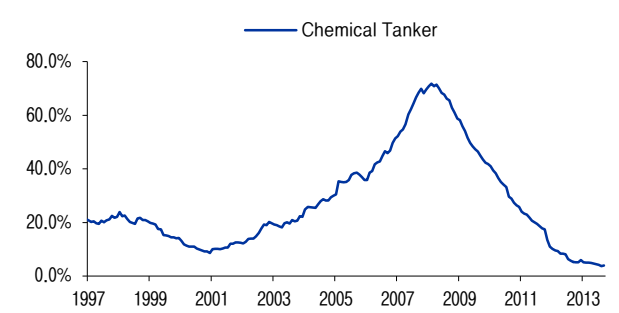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이 Pure Chemical tanker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된 27척 중 26척을 수주했다. 37K급 Chemical tanker 가격이 50K Products tanker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과 많은 건조 경험으로 기대 수익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림1] Trends of Chemical spot rates from U.S.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Orderbook/Fleet of Chemical Tankers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